

성서40주간(성서39주간: 요한 1,2,3서)

1. 책의 이름 : 복된 사도 요한의 서간(라틴말)

- 3통의 편지는 요한복음서와 요한 묵시록과 함께 '요한계 문헌'으로 통칭된다. (가톨릭 서간으로 분류된다)

2. 저술연대 :

제1,2,3서 : 요한복음서(90-95년경)보다 약간 늦은 100년경에 에페소 또는 시리아에서 쓰였을 것으로 추정한다.

3. 구조

제1서

- 1,1-4 : 머리말
- 1,5-2,27 : 하느님은 빛이시다.
- 2,28-4,6 : 하느님 자녀의 삶
- 4,7-5,12 : 하느님은 사랑이시다.
- 5,13-21 : 맺음말

제2서

- 1,1-3 : 인사
- 1,4-6 : 진리와 사랑
- 1,7-11 : 이단자들에 대한 경계
- 1,12-13 : 맺음말

제3서

- 1,1 : 인사
- 1,2-12 : 전도자들에 대한 협조
- 1,13-15 : 맺음말

4. 내용

- 요한의 첫째 서간은 이단자들의 침투로 인한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쓴 서간이며 둘째, 셋째 서간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이다.
- 요한의 첫째 서간의 목적은 '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(1요한 2,1)'이며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한다(1요한 1,1-2)
- 하느님은 빛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. => (1요한 2,3-29) (1요한 2,9)
- 새로운 가치관 => 1요한 2,6 => 그리스도의 가치관이다.(1요한 2,7-11)
- 그리스도의 적에게 속지 마라(1요한 3,7-10)
-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? => 요한 1,2,3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이다.
 - ✓ 하느님의 자녀 : 1요한 3,2-3
 - ✓ 악마의 자녀 : 1요한 3,8
 - ✓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. : 1요한 4,1 => 우리는 교회이다.
- 둘째 서간도 속이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(2요한 1-7)
- 셋째 서간에서는 공동체에 균열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(3요한 1,9) => 티오토레페스라는 사람이 나타남.
-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? => 교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.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.